

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 광 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서〉
‘사약함을 막아 그 성(誠)을 보존한다’는 것은 마음으로써 말한 것이고, ‘말을 닦아 그 성(誠)을 세운다’는 것은 일로써 말한 것으로 안과 밖으로 서로 기른다는 뜻이다. 마음으로써 말하면 실리(實理)를 본디 가지고 있으므로 ‘보존한다’고 하고, 일로써 말하면 실덕(實德)은 권변해야 할 것에 해당하므로 ‘세운다’고 한다. ‘보존한다’는 것은 본디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지키는 것이고, ‘세운다’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오르고 내림이 일정치 않고… 때에 미치고자 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오르고 내림이 일정치 않다’, ‘나아가고 물러남이 항상됨이 없다’는 것은 ‘혹 뛰여’의 의미를 설명한다. ‘비뚤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무리를 떠나려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못에 머물러 허물이 없다’는 것의 뜻을 말한다. ‘때에 미치고자 한다’는 것은 뿔 만한허위 때에 따라 나아가함으로써 그 혜택을 베풀고 끝내 잡겨 있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뛰여 못에 머물고 하늘로 오르는 양으므로 뒷사람에게 대드는 등의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무리를 떠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때에 따름으로써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일 뿐이므로 허물이 없다.

오정(吳徵)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순(舜)이 신분이 낮은 필부에서 황제의 지

위에 오르고, 탕·무가 제후의 낮은 신분으로 천자가 된 것은 그렇게 할 만한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지 순·탕·무가 의도했기 때문이겠는가? 어찌 사약한 짓을 하고 무리를 벗어나려 했기 때문이겠는가? 나는 이 설명이 이 상(象)의 본래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못에 머물러 허물이 없다’고 하고 다시 ‘무리를 떠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면 그 뿔이 못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 나아가므로 무리를 떠난 것이 아니다. 그 때문에 순·탕·무의 고사를 뜯금없이 말해서는 안 된다. 효에서 ‘혹뛰여’라고 하면서 용을 칭하지 않은 것에서 이러한 의도를 알 수 있다.

구오(九五)에서 성인이 천자의 자리에 앉아 태평을 이룬 일을 언급하려 하는데 여섯 효가 때에 따라 의미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구사에서 미리 그일을 말해서는 안 된다. 뒷구절에 이른바 ‘건도가 이에 비견다’는 것은 위아래 두 건(乾)이 변혁하는 시기임을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상체(上體)의 아래 있어 마치 초야에서 일어나 삼공(三公)의 지위에 진출하는 것과 같다. 이는 순이 시험을 거처던 때에 해당하므로 갑작스레 탕·무의 혁명을 말할 수는 없다. 정말 남김없이 말한다면 이는 건에 군주가 들인 상(象)이니 크게 혼란한 도리일 뿐 아니라 성인께서 은미한 것을 삼가고자 하는 의도를 놓친 것이기도 하다. 위대하다 건이여! 강하고 굳세며 중

(中)하고 정(正)함이 순수하고 정밀하다.

이는 건도의 위대함을 통칭하여 언급한 것으로 꽤 전체로써 말한 것이다. ‘여섯 효가 발휘하는 것은 두루 정을 통함이다’라는 것은 각각의 효에 나아가 말하는 것이다. ‘때로 여섯 용을 타고 하늘을 어거하니 구름이 일고 비가 내려 천하가 평안하다’라고 한 것은 성인이 건을 체득한 효과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강하고 굳세며 중(中)하고 정(正)함이 순수하고 정밀하다’는 것은 과를 그리기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여섯 효가 발휘하는 것은 두루정을 통함이다’라는 것은 이미 그려진 뒤에 드러나는 것이고, ‘때로 여섯 용을 타고’라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덕이고, ‘구름이 일고 비가 내린다’는 것은사물에 미치는 혜택이다.

그러나 「단전(象傳)」은 ‘구름’이 일고 비가 내린다[雲行雨施]를 ‘용을 타고 하늘을 어거한다[乘龍御天]’의 위에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아래 언급한 것은 성인에게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성인의 움직임은 바로 천이니 비단 하늘이 구름을 일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것뿐이 아니다. ‘용을 타고 하늘을 어거한다’면 천의 공용(功用)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므로 스스로 음양이 조화로이 변창하고 구름을 일게 하비를 내리게 하여 천지가 자리하고 만물을 화육하는 극진한 공을 드러낼 수 있다.



처지하시다 자위 남용하시되 방유도에 불쾌하며 방무도에 면어형전이라하시고 이기형지자로 처지하시다.]

【이해】
공야[公冶]는 복성(複姓)으로 이름은 지[芝]자는 자장으로 공자의 제자이고 노나라 사람이었다. 남용[南容]은 공자의 제자 남궁괄[南宮括]을 가리키며 자[子]가 자용[子容]이고 맹의자[孟軻子]의 형으로 역시 노나라 사람이다. 공자의 부친 속랑왕[陔梁纒]이 노나라 시 씨에게 장가들어 딸만 아홉을 낳고 첩을 들여 아들을 얻은 것이 맹 피인데 다리가 부러졌다. 하며 다시 노나라 안씨[顔氏] 장재[徵在]와의 사이에 공자를 낳았다. 그 당시 공자의 형이 되는 맹 피는 이미 죽고 없는 뒤에서 공자가 주혼[主婚]한 것이다.

제2장
공자[孔子]가 자천[子輒]에 대해 말했다. “군자보다 이 사람이야말로 노나라의 군자들이 없었다면 어찌 이 사람한테 이만한 덕성이 갖춰질 수 있었겠는가.”

【원문】
子謂子輒하시되 君子哉여 若人이 魯無君子者라면 斯焉取斯리요. [자위자천하시되]군자재여 약인이 노무군자자라면 사언취시리요.]

【이해】
자천[子輒]의 성은 복[苒]. 이름은 부제[不濟]. 자천은 그의 자[字]이다. 공자[孔子]보다 서른 살이 연소하였고 노나라 사람이었다. 노나라에는 유학한 군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천 같은 인재를 갖춘 존재[俊才]가 배출되었으리라는 말 가운데는 남을 찬찬할 때에는 먼저 그 부형과 스승 벗 등에게 좋은 점에근본을 두던 옛 시절의 후덕한 기풍이 은은히 배어나고 있다.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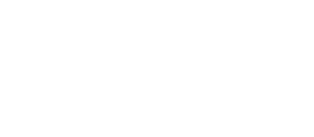
공자가 물었다.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너는 그릇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어떠한 그릇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호련이다.”

【원문】
子貢이 問曰 賜也는 何如이니까 子曰 女는 器也니라 曰 何器也이니까 曰 瑚璉也니라.[자공이 문왈 사야는 하여이니까 자왈여는 기아니라 왈 하기야이니까 왈 호련야니라.]

【이해】
공자에게 자신의 인품에 관해 질문한 자공한테 종묘(宗廟)의 제례 때 기장을 담는 중요한 제기[祭器]인 호련(瑚璉)에 비유하여 아직 확실한 완성까지는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상당히 근접한 정도까지 수양이 도달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별기고

〈51호〉



권장군 25세 때인 1919년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후일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무장독립군으로 충칭(重慶)에서 창설된 항일군대인광복군 제3지대장을 지낸 백과(白波) 김학규(金學奎)장군과 동기며, 당시 권장군은 광복군 제5지대장이었다. 1919년 11월 9일 밤 중국 길림성(吉林省) 파호문(巴虎門) 밖 중국인 반(潘)모씨 집에는 김원봉(金元鳳), 윤세주(尹世胄), 이성우(李成守),곽재기(郭在驛), 강세우(姜世守), 이종암(李鍾岩), 한봉근(韓鳳根), 한봉인(韓鳳仁), 김상윤(金相潤), 신철휴(申錫休), 배동선(裴東宣), 서상락(徐相洛), 권준(權駿) 등이 모여, “천하의 정의의 일을 맹렬히 실행키로” 맹서하고, 의열단(義烈團)을 결성하였다. 김원봉(그를 의열단을 결성하였으며 조선 의용대에서 활동하였고 후에 대한민국인시정부의 국무원 및 군무부장<국방부장관 직>을 역임)이 단장 격인 ‘의백(義伯)’에 선임되었다.

의열단 창립선언문은 신채호가 「조선 혁명선언문」으로 작성하였다. 그 가운데 ‘공야 10조’, ‘암살 대상’, ‘과과 대상’을 활동지침으로 채택하였고, 일제 침략기관의 과과와 침략원충 응징을 활동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역적을 몰아내어(驅逐倭奴), 조국의 광공을 이룩하며(光復祖國)’, ‘계급의 차별을 타파하고(打破階級)’, ‘평등한 토지 소유를 이룩한다(平均地權)’는 최고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헌신키로 맹세하였다.

해방 후 국내신문에 실린 권준의 ‘악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駿) 장군<3>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력’에 의하면, 그는 1920년대 초 ‘동계대학(同濟大學) 공과’에서 수학하였다. 이는 그가 상하이에서 동계대학에 다니며, 의열단 활동에 참여하였을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권장군이 30세 때인 1924년 1월 중국 광둥성 광주(廣州)에서 중국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소집되었을 때, 그는 김원봉 등과 앞서버로 참석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반봉건, 반제국주의 투쟁을 통한 근대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소련과 연대(聯聯)’, ‘공산주의 용인(容共)’, ‘노동자와 농민의 상호협조(工農扶助)’ 노선을 채택하였다. 이른바 ‘제1차 국공합작’이 성립되었다.

요컨대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을 두 축으로 하는 반봉건, 반제국주의의 근대 민족운동세력이 단결을 이룬 셈이다. 그리하여 첫 걸음으로 왕 왕조 붕괴 이래 중국대륙을 할거해 온 각지의 군벌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북벌전(北伐戰)’이 시작되었다. 반봉건, 반군벌 투쟁이 중국 근대민족운동의 선결과제가 된 것이다.

권준 장군 등은 근대민족운동의 수행을 위해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이라는 이념이 집적으로 다른 두 세력이 단결, 합작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대회 참관을 통해, 의열단은 종래의 의열투쟁 노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민족전체혁명의 총동원을 통한 민중 직접혁명이 최우선적인 길임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를 선도할 중견간부의 양성이 시급함을 자각하였고, 의열단 단원 스스로 민중 직접혁명을 이끌 수 있는 정치, 군사간부가 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방편으로써 황포군관학교 입교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권준 장군의 의열단 활동을 추적하고 있는 일제자료에서는 “1925년 8월

明心寶鑑

명심보감

▣ 권혁재 (본원 총사 연구위원)

IX. 勤學篇(근학편)

● 子曰(자 왈) 博學而篤志(박학이독지)하고 切問而近思(절문이근사)면仁在基中矣(인재가중의)니라.

해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널리 배워서 뜻을 두텁게 하며 문기를 진실로 하여 생각을 가까이 하면 여덟이 그 가운데 일노니라.”고 하셨다.

참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널리 배워서 뜻을 두텁게 함, 근사(近思)-깊이 생각하는 것, 近-가까울 근, 博-넓을 박, 篤-두터울 독,

● 韓文公이曰(한문공이 왈) 人不通古(인불통고)이면 馬牛而襟裾(마우이금기)니라.

해설: 한문공이 말하기를, “사람이 고금의 성인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말과 소에게 옷을 입힌 것과 같으니라.”고 하셨다.

참고: 한문공(768-824)은 당(唐)나라 德宗때의 문학자다. 이름은 유(愈)요, 자는 퇴지(退之)이며, 창려(昌黎) 사람으로,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제 일인자로 꼽힌다.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佛敎)와 도교(道敎)를 배척하였음. 저서로는 한창려문집(韓昌黎文集)40권 외집(外集)10권 등이 있다. 문공(文公)은 그의 시호(詩號)이다.襟-옷깃금,裾-뒷자락 거 높은 산에 올라 사해(四海)를 바라보는 것과 같으니라.”고 하였다.

● 朱文公이曰(주문공이 왈) 家君貧(가약빈)이라도 不可因貧而廢學(불가인빈이폐학)이요 家君富(가약부)라도 不可恃富而怠學(불가시부이태학)이니 貧若勤學(빈약근학)이면 可立身(가이입신)이요 富若勤學(부약근학)이면 名乃光榮(명내광영)하리니 惟見學者懶達(유견학자현달)이요 不見學者無成(불견학자무성)이니라. 學者(학자)는 乃身之寶(내신지보)요 學者(학자)는 乃世之珍(내세지진)이니라. 是故(시고)로 學則乃爲君子(학즉내위군자)요 不學則爲小人(불학즉위소인)이니 後之學者(후지학자)는 宜各勉之(의각면지)니라.

해설: 주문공이 말하기를,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가난으로 인하여 배우는 것을 저버리지 말 것이며,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부유한 것을 믿고 학문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몸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며, 부유한 사람이 만약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더욱 빛날 것이니라. 오직 배운 사람만이 훌륭해 지는 것을 보았으며, 배운 사람으로서 이루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했노라. 배운이란 곧 몸의 보배요, 배운 사람이란 곧 세상의 보배니라. 그러므로 배우는 군자가 되고 배우지 않으면 천한 소인이 될 것이니 후에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각 각 힘써야 하느니라.”고 하

서영호(徐應浩, 徐義毅의 이명)가 ‘의열단 회계책임자’ 권준의 소개로 의열단에 가입했다”고 기록하였다. 또 1926년 11월 경 광둥성(廣東省) 한봉근의 셋집에서 열린 의열단 제2차 대표대회에서, ‘권준이 김원봉, 오성룡, 김성숙, 장지락, 최원, 이영준, 강세우와 함께 중앙집행위원회 선출되었다’고 하였다. 그가 의열단 활동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고, 또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은, 그가 1920년대 중반 의열단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중국 광둥성 광주에 있었던 황포군관학교에 권장군이 입교한 것은 32세 때인 1926년 3월 8일이었다. 권장군은 이 때 개학 한 47기생으로 함께 입학 한 한국인은 24명이었다. 참고로 47를 전후한 입교생을 비교해 보면(3기:5명, 5기:5명, 6기:9명, 7기:1명, 8기:2명, 10기:16명, 11기:24명, 12기:5명, 15기:1명, 16기:2명이었다.), 각 기별 한국인 4기 입교생이 가장 많은 인원이었다.

47생 24명의 소속을 살펴보면, 보병과: 박효삼(朴孝三), 박건웅(朴健雄), 왕자량(王子良), 윤의진(尹義進), 전의창(田義昌), 이우각(李愚愷), 이집중(李集中), 이종원(李鍾元), 이기환(李箕煥), 김종(金鐘), 강평국(姜平國), 유일욱(柳元郁), 최필(崔林:김원봉의 가명), 최영택(崔泳澤), 양금(楊金), 노일룡(盧一龍), 권준(權駿) / 포병과:오세진(吳世振) / 공병과:김홍묵(金洪默) / 정치과:문선재(文善在), 박익제(朴益濟), 백홍(白紅), 노세방(勞世芳), 노건(盧建)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 박효삼, 왕자량, 이집중, 이기환, 김종, 강평국, 최필(김원봉), 최영택, 양금, 노일룡, 권준, 노건 등은 의열단 출신이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13)

논어해설

▣ 權貞澤 花山院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4편 이인(里仁)
제20장
공자가 말하였다.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아버지가 실행해오던 방법을 고침이 없어야 가히 효자라 말할 수 있다.
【원문】
子曰 三年을 無改於父之道라야 可謂孝矣니라. [자왈 삼년을 무개어부지도라야 가위효의니라.]

【이해】
그렇다고 아버지의 과오까지도 그대로 답습하라는 뜻은 더욱 아니며, 부조(父祖)들이 애써 일궈놓은 유업을 헐사리 바꾸거나 훌륭한 행적을 함부로 다루서 가치 없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제21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부모의 연세는 잘 기억해 알고 있지 않으면 안니 된다. 한편으로는 오래사는 것이 기쁘고 한편으로는 노쇠해지는 것이 두려워진다.”
【원문】
子曰 父母之年은 不可不知也니 一則以喜요 一則以懼니라. [자왈 부모지년은 불가불지야 일즉이희요 일즉이구니라.]

【이해】
부모의 나이 자체보다는 연 차(年齒)가 높아 저잡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를 잘 인식 하라는 경계이다. 부모가 장수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여성이 감소된다는 점에 미쳐서는 슬픔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제22장
공자가 말하였다. “옛사람들이 말을 앞세우지 않았던 것은 실천이 이에 미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겼던 때문이다.”
【원문】
子曰 古者의 言之不出은 恥躬之逮也니라.[자왈 고자의 언지불출은 차궁지재야니라.]

【이해】
말은 그럴싸해도 실질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심할 경우에는 자기가 깨내 놓은 언동에 대한수치조차 모르는 세대[世態]를 개탄하는 말이다.

제23장
공자가 말하였다. “매사를 단속함으로써 실수하게 되는 사람이란 드물다.
子曰 以約으로 失之者는 鮮矣니라. [자왈 이약으로 실지자는 선의니라.]

【이해】
무슨 일이든 위난에 대비하고 정돈을 기해 예방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인해 실수를 범하는 경우란 실제 최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적인 섭리일 것이다.

쳤다.
참고: 因-인할 인, 인빈(因貧)-가난으로 인하여, 怠-게으를 때, 廢學(폐학)-배움을 버리다, 恃-믿을 시, 恃富(시부)-부유한 것을 믿는 것, 勤-부지런할 근, 勤學(근학)-부지런히 배우는 것, 乃-이에 내, 곧 내, 바로 내, 珍-보배 진, 세지진(世之珍)-세상의 진귀한 보배, 勉-힘쓸 면, 勉之(면지)-힘쓰라, 宜-미땅 의, 맛을 의.

● 徽宗皇帝 曰(휘종황제 왈) 學子(학자)는 如禾如稻(여화여도)하고 不學者(불학자)는 如蒿如草(여호여초)로다 如禾如稻乎(여화여도혜)여 國之精糧(국지정량)이요 世之大寶(세지대보)로다. 如蒿如草乎(여호여초혜)여 耕者憎嫌(경자증혐)하고 鋤者熾煩(서자번뇌)니라 他日面牆(타일면장)에 梅之已老(회지이로)로다.

해설: 휘종황제가 말하기를, “배운 사람은 모나 벼와 같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속이나 풀과 같다. 모나 벼와 같음이며, 나라의 좋은 양식이요 온 세상의 큰 보배로다. 그러나 속이나 풀 같음이며, 밭을 가는 이가 보기 싫어 미워하고, 감매는 이가 더욱 귀찮아한다. 훗날 담장을 면(面)한 듯 담담함에 뒤우쳐도 이미 늙었으리라.”고 하셨다.

참고: 휘종황제(徽宗皇帝)~~북송(北宋)의 제 8대 임금. 신법당(新法黨)을 등용, 급세나 그림에 조개가 놓였으며 고금(古今)의 서화를 모아 선화서화보(宣化書畫譜)를 만들었다. ㅎ~~(해)-어조사로서...이며, 精糧..좋은 양식, 蒿~~속초, 증협(憎嫌)~~싫어하는 것, 悭~~미워할 증, 嫌~~의심할 혐, 서자(鋤者)~~감매는 사람, 鋤~~호미 서, 번뇌(熾煩)~~마음이 괴로운 것, 熾~~번거로운 번, 惱~~번뇌할 뇌, 타일(他日)~~훗날, 뒷날, 牆~~담 장, 牆과 같은 자, 已-이미矣.

● 論語에曰(논어에 왈) 學如不及(학여불급)이요 惟恐失之(유공실했)니라.

해설: 논어에 이르기를, “배우기를 다하지 못한 것 같이하고, 오직 배운 것을 잃을가 두려워 할 지니라.”고 하셨다.

참고: 논어(論語)는 사서(四書)의 하나이며 공자에 죽은 뒤에 제자들이 그의 성품과 행실과 말을 모아 엮은 책으로 7권 20편으로 되어 있는 유교의 경전(經典)이다. 惟~~오직 유, 恐~~두려울 공, 失-그릇 될 실, 疇, 疇-말할란, 생각란, 四書는 論語(논어) 孟子(맹자) 中庸(중용) 大學을 말한다.